

THE FIRST, THE BEST

혁신을 거듭하다

최상의 기술력,
최고의 제품에 대한 SIMPAC그룹의 열정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계 및 합금철 제조기업으로서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유통/가공에서 프레스 제조, 주조/주물,
합금철 생산, 타이어 제조 설비 제작에 이르기까지,
THE FIRST, THE BEST를 향한 SIMPAC그룹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
• 중소형, 대형 프레스 제조



SIMPAC 인터스트리

고품질의 주조주물 선도기업
• 산업기계, 감속기 및
부품 생산



SIMPAC 산기

No.1 기술력의 타이어
제조설비 전문 기업
• 가류기, 성형기, 재단기 등
제작



SIMPAC 메탈로이

국내최초 합금철
개발/생산 기업
•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생산
• 고분자 화학사업



SIMPAC 메탈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
• 고품질, 고부가의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

SIMPAC STORY

2016
NEW YEAR
VOL.33



{ 소통을 나누고
웃음을 더하다 }



SPECIAL THEME

- 04 SIMPAC 테마A컷
소통을 나누고 웃음을 더하다
- 06 SIMPAC 메시지
2016년 신년사
- 11 SIMPAC News
SIMPAC 소식
- 16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국내영업팀
- 20 기획칼럼
사회생활의 성공을 부르는 커뮤니케이션

ENJOY SIMPAC

- 24 SIMPAC Highlight
2015 SIMPAC Review
- 28 With Us
2015 한마음 전진대회
- 34 SIMPAC인의 겨울나들이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준기 대리
- 38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인의 어학 도전기
- 42 개인폴더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전시회 후기
- 45 편지 왔습니다
(주)SIMPAC 리순혁 사우가 전하는 편지
- 46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7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소통을 나누고
웃음을 더하다

04 SIMPAC 테마A컷



28 WITH US



38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 STORY

2016년 NEW YEAR
통권 33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6년 2월 19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웅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SIMPAC

지영호 사원

032-510-0025
yhji@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SIMPAC산지

김현수 과장

062-717-7214
kimhs@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2
jklee@simpac.co.kr

소통을 나누고 웃음을 더하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뭐 먹지? 내일은 뭐할까?

아침해를 맞이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속에 가득찬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풀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던 난제가 이야기
한 번으로 간단하게 풀리는 것은
상대방의 현명함 덕분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 문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옆에 있는 SIMPAC인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소통을 나누었을 때 더해지는 것은
행복한 웃음입니다.



SIMPAC

Simple & Compact
SIMPAC

66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바탕으로 새해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생존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금년 말에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이 따스한 연말을 맞이하고 우리의 세계적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99

친애하는 SIMPAC 임직원 여러분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무엇보다도 SIMPAC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그룹 계열사 대부분은 전에 없 이 긴 연휴를 가졌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달콤 한 휴식시간이자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 습니다. 저는 어느때보다 바쁜 지난 한 해를 보 냈습니다. 혼자 대표이사를 수행하고 있는 (주) SIMPAC INC 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 산기, 메 탈로이, 메탈 등 대부분의 회사 아니 모든 계열사 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이 퇴보하는 그룹 창립 초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좀 더 선제적 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까 가장 고민되는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과 솔직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작금의 우리 경제를 어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하면 나아진다, 걱정 마라, 미래는 희망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 지난주 신문사설에 실린 세계 석학들의 한국경 제에 대한 논평을 다룬 기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프리 랭겔 하버드대 교수

"과거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 한국경제는 실망스 러운 수준"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한국 경제 위축은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수출 주도 국가의 대표적 실패"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한국 정부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는 고성장이 어 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

이 같은 이례적 지적은 대표적 성공사례이던 우 리 경제가 대표적 실패사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와 SIMPAC 그룹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만 다를 뿐 우리 기업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 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만들고 누구 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제품도 여태껏 그래왔듯 팔리겠지 하면서 살아온 안일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시간이 흐르면 넘어 갈 수 있는 순환적 위기가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 돌파하지 못하면 바로 좌초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결국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 려면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고치고 혁신 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길 뿐입니다. 지난해 초 (주)SIMPAC 현장직 직원들의 근무자 세와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일년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됩니 다. 그 때 더 정확히 엄하게 이야기했다면 1년을 더 준비했을텐데 공연히 점잖게 지시함으로써 우 리가 갖고 있는 화급함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시장이 물러나고, 전무가 그만뒀도, 또 다른 임원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우리 직원들은 현재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심각함을 아직도 자신의 일 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합금철 생산성 및 조업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난 연 말 포항공장에서 두번째로 큰 전기로가 멈춰서니 그제서야 위기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높은 전력비,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한참 부족한 기술력, 그리고 변함없 는 제품의 결함과 A/S 비용. 이것이 대한민국 경 제의 현 주소이자 SIMPAC의 현실이 아닐까요. 새해 첫날 칭찬과 덕담만 늘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저는 최고 경영자로서 자기 고백과 함께 여러 임직원들께 향후 생존을 위 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모두들에게 듣기 좋은 말 보다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단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수년, 길어야 3~4년이 SIMPAC그룹의 모든 사업부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감히 밝힙니 다. 이 같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첫번째, 이제껏 해왔던 일하는 방법의 철저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경쟁사인 독일, 일본회 사 등 선진사의 임직원보다 더 나은 우리 임직원 각자 개개인의 능력향상이 우선입니다. 여의 부 장, 동료 과장, 차장, 반장, 조장과의 경쟁이 아닌 세계 최고회사 임직원과 경쟁해서 나의 능력을 갖추이 우선입니다.

두번째, 우리는 함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 제품은 R&D만의 몫이 아닙니다. 영업, R&D, 생산, 구매, 외주관리, 품질, 경영지원 등 모두가 벌떼같 이 달려들어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의 제품을 경쟁 력 있는 가격에 생산하고 제공하는 종합능력을 키 워야 합니다. 이 점이 지난 연말 SIMPAC 그룹 인사 방향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되 통합하고 협 조하여 더 큰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번째, 고객의 층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해 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개척에 가일층 노력해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IMPAC 그룹은 아직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믿 습니다. 몇년전 임직원 여러분께 소개했던 '바보 zone' 이야기 같이 우직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 하시는 임직원이 많은 회사입니다. 다만, 회사가 더 나은 방법과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따 립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바탕으로 새해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생존능력을 획기적으로 높 여 금년 말에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이 따스한 연말을 맞이하고 우리의 세계적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소 거친 신년사에 양해 를 바랍니다.

2016년 새해 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 진 식**

SIMPAC INDUSTRIES



안녕하십니까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여러분.

해가 바뀐 지금, 아직은 찬 기운이 만연하지만, 시작이라는 설렘과 열정에 문득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것들을 깨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강구해야 할 신년이 밝았습니다.

작년의 것들 중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버리는 쇄신을 행해야 할 때이며,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2016년 올해의 흥망성쇠가 오늘의 다짐, 오늘의 각오에서 비롯되는 까닭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혹독한 겨울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뼈저린 추위를 되새김질 하며 사기를 저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성의

시간보다 앞서, 올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절실한 사기와 열정 회복을 위한입니다.

비록 현재 가혹한 계절을 견디고 있지만 봄은 언제나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의 시간이 있는 까닭에 봄은 예전의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기 위하여서는 최대한 낮게 움츠려야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도약을 위하여 더욱 몸을 낮추고 움츠리는 시기였습니다. 올 한해, 뛰어오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마땅히 버리고 옳은 것을 더욱 발전시켜 다가올 새 봄을 준비하는 임직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천명하고 사기를 앙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힘차게 박동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깨끗하고 새로운 피를 공급하여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함 같이, 우리의 회생함을 꿈꿔 봅니다. 꿈이 바람이나 망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 임직원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SIMPAC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서 련 석**

SIMPAC INDUSTRIAL MACHINERY



안녕하십니까
SIMPAC산기 임직원 여러분.

SIMPAC산기의 큰 변화가 있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보내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SIMPAC산기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내부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고 '작지만 강한 회사'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체질개선'을 위한 기술, 품질,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을, 2012년도에는 3대 핵심경쟁력 확보를, 2013년도에는 기술연구소 인력 보강 및 대만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를, 2014년도에는 해외 고객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 영업을, 2015년도에는 무노조 전환과 근무

환경의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작지만 강한 글로벌 No.1이 되기 위한 '탄탄한 근육'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간접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직접수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저희 SIMPAC산기는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대형 기계 설비를 해외에 직접수출 해왔고 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온 회사로 진정한 글로벌 No.1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탄탄한 근육의 기초는 인재, 조직, 기술 세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즉, '우수한 인재 확보', '가볍고 유연한 조직 구축', '기술연구소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핵심은 인재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잘 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및 감독의 강화, 문서화, 전산화, 시스템화 등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핵심인 기술, 지식, 경험이 회사 내에 모두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생각입니다. 회사 내부에 남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분이 임직원 개개인에게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임직원 여러분 개개인이 회사의 자산이자 핵심으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하고 성장해야만 회사 내부에 회사의 핵심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 주주, 회사, 임직원의 가치가 함께하는 SIMPAC산기가 될 수 있도록 2016년 한 해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SIMPAC산기
대표이사 **최 준 영**

사랑하는 SIMPAC메탈로이,
그리고 SIMPAC메탈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난 해는 사상 유례 없는 철강경기 침체와 거대 경쟁업체의 워크아웃, 제품가격 하락, 전기요금 인상 등 온갖 악재들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양의 생존능력' 처럼, 발전과 성장보다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올해 역시 기업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경쟁사들보다 앞서 조직을 효율적 개편하고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포항 1공장의 1호 전기로의 가동을 중지한 지금, 우리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잘하자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년에 따뜻한 손을 잡으며 인사하고, 새벽이슬 함께 맞으며 출근하고, 별이 뜬 늦은 밤 함께 귀가하던 동료들과의 정이 자꾸 눈에 밟히지만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피·땀흘려 일군 소중한 일터를 우리 후배들에게 온전히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담긴 이 일터가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묻히길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사장인 저부터 허리띠를 조여 매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하나로 뭉쳐 우리모두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당부로 신년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조원이 절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조정 할 수 없는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더욱 낮추거나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개발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SIMPAC METALLOY SIMPAC METAL



둘째, 극한의 원가절감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실시한 원가절감으로 많은 부분 원가절감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한번 더 돌아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의 처절한 노력의 과정까지 헤아려 줄 야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셋째, 우리 직원들의 역량개발입니다. 합금철 시장이 어렵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해 과목 선정부터 신중하게 하고, 좀더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개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역량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각자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고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회사에서 안전조업 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 일을 해도 어려운 시기에 동료의 재해는

정말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슬픔입니다. 웃는 얼굴로 출근한 그 길을 다시 웃으며 퇴근하여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의 지금 '생존'을 위한 원가절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장인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존'을 위한 신수증사업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아침 차가운 동해바다 위에 떠오르는 저 해처럼 우리 회사의 모든 전기로에서 시벨건 용탕이 출탕되고, 이를 식히기 위한 새하얀 수증기로 회사가 둘러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식회사 SIMPAC메탈로이&메탈
대표이사 **송호석**

SIMPAC NEWS

SIMPAC 그룹

SIMPAC 최진식 회장 '2015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국가 인재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이어져

지난 12월 14일, 동국대 총동창회가 열린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최진식 SIMPAC 회장이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최진식 회장은 창업 10년 만에 1조원의 자산을 일군 산업 역군으로서 그간 사회에 귀감이 되어 온 역할을 인정받

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동국인 7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동국인의 대표로 받은 상이라 SIMPAC과 최진식 회장이 유난히 빛나는 자리였다. 시상식 이후에는 최진식 회장이 설립한 필정장학재단에서 입법/행정고시에 합격한 3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SIMPAC
NEWS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SIMPAC메탈로이
		SIMPAC메탈
		SIMPAC산기

SIMPAC
그룹

SIMPAC그룹 계열사, 2016년 시무식 실시

1월 4-5일, 이들 간 SIMPAC그룹 각 계열사에서 201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이 진행되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된 이날 시무식에서는 SIMPAC인들의 결연한 눈빛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과 신년사로 이어진 시무식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이겨 내자는 힘찬 다짐과 악수로 마무리되었다.

SIMPAC

SIMPAC 이웃사랑 나눔 활동



지난 연말 (주)SIMPAC은 국내 최고 프레스 제조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공동발전과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에도 힘썼다. 임직원들이 각각 모은 성금 1천만원을 관내 시민을 위한 기금으로 부평구청에 전달하였고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냈다.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아동들을 위해 SIMPAC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하여 더욱 뜻깊었다. 부평구청을 직접 방문한 심용섭 상무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손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SIMPAC
인더스트리

SIMPAC인더스트리, 인천 남동구 지역민을 위한 성금 기탁



연말을 맞이하여 SIMPAC인더스트리 직원들은 인천 남동구청을 방문하여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SIMPAC인더스트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뜻 도움을 내밀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좋은 뜻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SIMPAC인더스트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역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바랐다. 기부 받은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의 동절기 생계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SIMPAC
NEWSSIMPAC
메탈로이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지난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 평소 성실한 회비 납부와 임직원이 모두가 참여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전사적인 봉사활동 전개 등의 이유로 타에 모범이 되기에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회원유공장 금장을 받게 되었다.

2015년 포항철강 대축제 철강사랑대상
경북도지사 표창 수상

지난해 11월 20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매일신문사예고 공동 주관한 '2015년 포항철강 대축제'에서 우리 SIMPAC 메탈로이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일터혁신을 통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강사랑 대상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전달



지난해 11월 21일 포항시청 9층 시장실에서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일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회사경영과 납세만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SIMPAC메탈로이에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말에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사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회적 책임마저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없다."며 SIMPAC메탈로이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 활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답하였다.

새하얀 설원에서 태운 젊은 열정과 우정

지난해 12월 12일~13일 1박2일의 일정으로 SIMPAC메탈로이 대리·사원 모임을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하이원스키장에서 첫 전체 모임을 가졌다. 송효석 사장이 부임한 후 '즐거운 회사생활'이란 슬로건 아래 포항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대리, 사원을 주축으로 젊은 직원들끼리 화합하고 협동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 정기적으로 활동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정도 꾸리며 진행하던 중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평소 포항-서울이라는 거리적 제약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직원들은 이날 모임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며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넘어지기도 하며 오랜만에 만난 서먹함을 날려보내고, 저녁 식사와 함께한 친교의 시간에서는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간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냈다. 그리고 이날 현수막에 쓰인 문구처럼 우리 SIMPAC메탈로이의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2008년의 기록을 우리 젊은 직원들이 다시 한번 갱신해 보자는 결의도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우수기업' 인증

지난해 12월 24일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우리 SIMPAC메탈로이는 '자원봉사 우수기업' 인증을 기념하는 동판과 인증패를 받았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내 봉사단 "심.봉.사" 창단 3년 만에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다. 이는 20만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결과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SIMPAC메탈로이



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올해 3월에는 모범납세 표창을 받고, 장학금 기부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지 몰랐는데, 오늘 자원봉사 우수기업 인증까지 받는 것을 보니 정말 정직하고 바른 기업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설 맞이 봉사활동

지난 1월 23일 토요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서 "심.봉.사" 봉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다. 오늘은 설 맞이 봉사

활동으로 '포항마루연희봉사단', '미소자장면봉사단', 그리고 '나전복지마을 품물단'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 우리가 찾은 곳은 포항시 장기면에 위치한 '유락원'이란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이상 들어와야 하는 외딴 곳이라 봉사활동을 오는 이들도 많지 않은데다. 흥겨운 우리가락 공연과 맛있는 자장면을 맛본다니 어른들이 이른 아침부터 1층 로비에 많이들 나와 계셨다. 오전 일찍 도착한 봉사단원들은 천정 등 청소 및 화장실 배수구 청소 등 평소 하기 힘들었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을 위해 어른들을 부축해드렸다. 이날 공연이 더욱 뜻 깊었던 것은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나전복지마을'식구들의 품물 공연이었다. 평소 봉사활동의 수혜만 받던 이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열심히 연습한 우리가락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날 그들의 표정에서는 사뭇 진지함까지 묻어나 평소 장난끼 많은 얼굴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심봉사 단원들도 또 한번 봉사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이어 맛난 자장면과 어른들의 소화까지 고려한 맞춤형 사이드메뉴인 물만두로 맛난 점심을 대접하고, 성능 땀땀한 청소기 2대를 기증으로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실천으로 소통한다!

SIMPAC인더스트리 국내영업팀

최근 국내영업팀은 다소 인상적인 인력구성을 마쳤다. 설계, 품질, 생산 파트에서 세 명의 과장이 각각 합류한 것. 기술영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방안이자 전투력 증진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게 팀의 기대다. 그런 만큼 팀의 분위기 또한 뜨겁다. 그런 그들이 그들만의 소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소통은 이미 끝났다! 결과만 남았을 뿐!”



국내영업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김진현 팀장 : 소재와 산업기계의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내영업팀은 전국에 지역을 팀원 별로 나누어 보다 즉각적으로 고객에 대응하고 정보수집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영업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 경험이 풍부한 과장 세 명을 영입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팀 파워를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50% 영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춧돌 역할인 세 명의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각자 각오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설희 과장 : 저는 감속기와 산업기계 영업을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생산에서의 갖고 닦은 노하우를 영업에 접목시켜서 팀과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면 영업활동도 좋은 결실로 다가오리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양용진 과장 : 처음엔 대면영업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보다는 헤쳐나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절실한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무엇보다 팀장님의 리더십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과장 : 품질파트에서 배운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적응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게 팀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팀원들과도 더욱 소통해야겠죠.

김진현 팀장 : 강력한 엔진과 실천력으로 팀원들의 존경의 대상이자 배움의 보고입니다.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팀 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에도 다음 날 출근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칼같이 하는 카리스마까지!

이길재 차장 : 감속기 파트 17년 경력, 하지만 영업 파트에선 팀장님을 스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박지만 차장 : 무뚝뚝해 보이지만 결단력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회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것부터가 영업의 시작이라고!

백지훈 과장 : 매사에 적극적이고 팀의 단합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팀에 웃음을 주는 캐릭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용진 과장 : 큰 업체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업체 상대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성격 또한 꼼꼼해 업무적으로 더욱 신뢰가 생깁니다.

BUSINESS

THINK

유선용 사원 : 박지만 차장님의 영업적 센스와 순발력을 존경하고, 팀 내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보력, 분석력이 탁월!!

정선희 과장 :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일의 능률도 오른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즐겁게 일을 만들어가는 스타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길재 차장 : 생산 분야는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써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20년 대선배님이지만 경쟁상대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 팀장님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지만 차장 :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업체 담당자를 대면하는 순간이 어렵다면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일로 방문해도 만나주지 않는 업체가 많은데, 크레임 건으로 업체를 찾아갈 땐 정말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도 현장에서 팀장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마음을 재정립하곤 합니다.

김진현 팀장 : 영업팀은 수치적 성과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죠. 투자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가 미뤄지고 성과가 안 나올 때만큼

힘든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선영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다니니까 조금씩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영업팀의 계획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진현 팀장 : 저희 팀의 소통은 "실천"입니다. 실천으로 소통하고 그러한 실천이, 소통이 곧 목표달성이라는 염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내영업팀의 소통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얘기할 때예요. 2016년은 지난 해의 소통을 통해 올해의 결과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굴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방향을 찾아 달려나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해에는 더 많은 기반을 만들어서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일년 5개월 동안 300여개 이상 업체를 방문했던 열정과 패기가 있는 한 저희 팀의 2016년은 분명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거라 기대합니다.

윤희철 사원 : 2015년 팀장님과 함께 하루 5-10개, 총 300여개 업체를 방문하며 영업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업을 알게 됐다고.

이진솔 사원 : 팀의 통일점으로서 영업활동을 지원 관리하며 통일점다운 막강파워를 발휘하여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멤버.

BUSINESS
SUCCESS
COMMUNICATION사회생활의
성공을 부르는
커뮤니케이션

글 자유기고가 배나영

“우리 회사는 왜 내 능력을 안 알아줄까?”, “우리 상사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봐.”, “저 직원은 자기주장만 내세워서 의논을 하기 어려워.”, “왜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까?” 회사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회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직이다. 회사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전략과 실천계획을 기준으로 삼아 한 몸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일을 여러 부서의 여러 사람들이 분담해 수행하고, 각자가 수행한 일의 결과를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하고 결합해 나가야 한다. 회사가 설정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조화롭게 협업이 이루어지려면 상하간, 부서간, 동료간 커뮤니케이션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회사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다. 업무 자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여보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훈련으로 다듬을 수 있는 역량이다.



핵심 인재의 요건은 커뮤니케이션

커트 모텐슨은 17년간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연구했다. 세계 최고 갑부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커뮤니케이션에 무척 능하다는 것이었다. 커뮤니케이션이 힘과 부를 거머쥐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IDEO,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앤드어소시에이츠, 3M, 구글처럼 창의성으로 이름을 떨치는 회사들은 구성원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회사들의 최고 경영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판단한

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들을 평가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경영역량의 하나로 평가하고, 교육 훈련과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시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회사의 큰 자산이며, 그런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이 된다. 자신의 정보와 지식과 성과물을 조직내의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직업인들이 성장하고 승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었다. 위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50%의 가치를 더 부여하겠다.” 위렌 버핏 뿐만 아니라 앤서니 로빈스도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좌우한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는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한다.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나의 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일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자료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부하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계를 지나, 전략과 전술을 토의하고 구성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회사의 경영성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기획 칼럼

사회생활의
성공을 부르는
커뮤니케이션



성공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은 경청에서부터

‘래리 킹 라이브’로 유명한 래리 킹은 미국 방송계의 전설이자 대화의 신으로 불린다. 어느 기자가 래리 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래리 킹이 그 기자에게 되물었다. “당신이 대형 화재 현장에 간다면 소방관을 잡고 무엇을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기자는 청산유수로 대답했다. “화재는 언제 일어났는지, 원인이 뭔지, 언제쯤 진화가 될지,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물어봐야죠.” 그러자 래리 킹이 말했다. “어이구, 이런! 그러니깐 평생 말단이지...” 머쓱해진 기자가 래리킹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질문하겠냐고 물었다. 래리 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조용히 소방관의 어깨를 다독여 주겠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데서 벌써 몇 시간째 고생이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화법은 평범한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프리젠테이션이나 일방적인 연설과 착각한다. 혹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이 더욱 많이 말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충분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 큰 기업의 구성원들은 근무시간의 60%를 평균적으로 듣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팀장의 경우는 70%로 높아지고, 직위가 높아

질 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하와이 시스템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빠르고 높은 직책을 갖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90%는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듣기는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의 피드백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가 된다. 경청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성공 기반이기도 하다.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의 3요소를

정확하게 활용하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그저 말하고, 듣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해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현실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사실과 정보를 상대방에게 언어나 비언어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반드시 상호이해에 도달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말했다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들었다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직장생활에서 수없이 겪는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이해다. 말하고 듣는 행위보다는 서로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UCLA대학의 알버트 멜라미안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요소를 3가지로 구분했다. 단어의 의미, 음성과 어조, 몸짓언어다. 보통 단어가 의미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겨우 7%의 영향력을 갖는다. 단어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



는 경우는 이메일이나 문자, 문서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다. 단어나 문장은 다양하게 전달되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음성적 요소다. 말의 고저, 장단, 강약, 음색, 속도 등이 의미 생성에 38%의 영향력을 갖는다. 가장 영향력의 비중이 큰 요소는 몸짓 언어다. 표정, 제스처, 손동작, 자세 같은 무언의 메시지가 55%의 의미를 전달한다. 몸짓언어는 영향력이 크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영향력을 높일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를 활용하면 더욱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단어나 어휘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음성은 표현할 때 고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몸짓언어에서는 표정과 몸짓이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과 맞아야 한다. 진지한 내용은 진지한 표정으로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의미 전달이 강력해진다. 평소에 자신의 언어습관, 대화 습관을 점검하고, 무의식적으로 쓰는 어투가 없는지, 습관적인 제스처는 없는지 생각해보자. 긍정적인 언어와 적절한 몸짓 언어가 어울렸을 때 비로소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2016
NEW YEAR
SIMPAC
STORY

당신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책

BOOKS FOR YOU

<베타 커뮤니케이션> by 유승렬, 위즈덤하우스

한 때 SK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저자는 30년간 회사생활과 10년의 경영자문을 하면서 회사의 주된 갈등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을 읽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회사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돌아켜볼 수 있다. 부서 내 협업, 부서 간 협업, 공식 행사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사나 부하직원, 동료 등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소개한다. 갓 입사해 상사 및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입사원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없는 3~5년차 직장인,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부하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10년차 이상 직장인까지 모든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EO를 감동시키는 소통의 비밀> by 강정훈, 미래와경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 보다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례와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예를 들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팀장의 일희일비하는 감정 변화에 팀원들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을 때, 팀원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피곤해진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현상과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한 번으로 상황이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들이 들어있다. 회사에 대해 비판하고 싶을 때, 다른 팀원이 내 상사를 비난할 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동료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새로운 팀에 배치되었을 때, 팀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회의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상사의 의견에 'NO'라고 말해야 할 때와 같은 갖가지 사례들이 가득하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해답을 찾아볼직 하다.

<소통의 기술> by 알렌 와이너, 평단

이 책의 원제는 'So Smart But'이다. 적당하게 해석하자면 “정말 똑똑한데 말이야, 그런데...” 정도가 되겠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그 사람 참 똑똑한데 대화가 안 돼, 그 사람 참 성과가 좋은데 직원들하고 잘 지내지를 못해, 그 사람 참 일을 잘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 같은 말들이 흔하게 오간다. 실제로 일을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신뢰할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가 요점 말하기이며,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말하기, 세 번째는 맨 끝에 결론을 제시하기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점 말하기'이다. 이 책은 듣는 사람에게 흥미로운 것을 말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방법은 질문과 같은 길로 대답하는 것이라던가 20장이 넘는 30분짜리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그걸 30초로 요약해서 말하는 방법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2015
SIMPAC REVIEW

과거는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면밀히 바라볼 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SIMPAC의 2015년은 어느때보다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SIMPAC의 지난 1년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찬 다짐으로 2016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1월



1월 5-6일 SIMPAC그룹 계열사 시무식 실시

전국에 위치한 SIMPAC그룹 각 계열사 사옥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를 시작으로 (주)SIMPAC, SIMPAC메탈, SIMPAC메탈로이의 순서로 연이어 실시된 시무식에서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월 23-24일 SIMPAC임직원 및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워크숍 개최

1월 23-24일 포항 SIMPAC메탈로이 사옥에서는 SIMPAC그룹의 구매담당 인력들이 모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장님과 SIMPAC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SIMPAC 2015년 시황 점검 및 효율적 통합구매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들은 SIMPAC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



2월 5일 SIMPAC산기, SIMPAC그룹의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하다.

타이어제조설비 생산업체 SIMPAC산기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2014년 SIMPAC인더스트리의 인수에 이어 타이어 설비분야 진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SIMPAC산기는 중국 로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높은 만큼 글로벌 No.1 기업이라는 SIMPAC의 목표에 힘이 될 것입니다. SIMPAC의 신성장동력으로 함께하게 될 SIMPAC산기의 인수는 그룹의 외형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7-28일 SIMPAC R&D, 생산부문 워크숍 실시

2월 27일, 28일 이틀 간 양평에서는 SIMPAC의 R&D, 생산부문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업무 현장을 떠나 한 자리에 모인 SIMPAC직원들은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공유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3월



3월 30일 SIMPAC메탈로이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표창 수상

포항시에서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지도 및 조사 실시한 결과 SIMPAC메탈로이가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면제되며 기업활동에 관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SIMPAC메탈로이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4월

**4월 3일 SIMPAC메탈로이 QSS 혁신리더 4기 킷오프**

SIMPAC메탈로이에서는 반기마다 좋은 일터 만들기 일환인 QSS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안전한 일터, 효율적인 일터, 깨끗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맹세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호석 대표이사는 세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위기를 혁신활동으로 이끄는 의지를 직원들과 함께 다졌습니다.

**4월 15-18일 SIMPAC그룹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과정**

신입사원들의 개인역량과 목표의식 강화를 위해 강원도 횡성에서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이 3박 4일간 실시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들의 리더십, 협동심, 도전정신 등을 기르는 과정으로 SIMPAC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지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4월 26일 SIMPAC메탈로이 통일기원 제15회 포항해변 마라톤 대회 / 5월 9일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 참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최우선 조건은 건강한 체력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맞춰 SIMPAC메탈로이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업무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7월 23일 SIMPAC 특성화고 공업계열 중심 산학관 업무협약체결**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SIMPAC은 인천 지역 청년층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IMPAC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3-24일 SIMPAC 너클/서보프레스 시연회 실시**

(주)SIMPAC은 이틀간 본사 프레스테크노센터에서 너클/서보프레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과 현장투어를 통해 SIMPAC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8월 27일 SIMPAC메탈 당진 가든파티**

매년 여름 무렵 SIMPAC메탈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를 풀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든파티가 열립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개최된 가든파티에서는 SIMPAC산기를 비롯해 여러 계열사들이 모여 더욱 풍성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9월

**9월 1일 SIMPAC인더스트리 뿌리기술경기대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국내 뿌리기업의 대표적인 SIMPAC인더스트리는 뿌리기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받은 상이라 더욱 값진 상입니다. 국내 뿌리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SIMPAC인더스트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9월 4일 (주)SIMPAC 황교안 국무총리 임금피크제 현장 간담회**

지난 9월 (주)SIMPAC 사옥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주요 기업 담당자가 참여한 임금피크제 간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의 발전된 노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10월 SIMPAC SV4P-2000 유럽CE인증 획득 및 첫 독일 수출**

글로벌 지역으로 생산공장이 확장되는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IMPAC은 초대형 프리미엄 서보 프레스인 SV4P-2000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프레스와 다르게 다공정 생산이 가능하며 여러 종류의 차 부품을 한 대의 기계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SV4P-2000은 독일로 수출하는 첫 제품으로 유럽CE인증까지 획득하여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SIMPAC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성과입니다.

**10월 31일 SIMPAC 2015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 11월 10일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SIMPAC그룹의 창립기념 행사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서울과 당진에서 열렸습니다. 트레킹과 족구대회가 펼쳐진 행사에서 모든 SIMPAC인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당찬 SIMPAC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

뜨거운 열정 아래 하나로 뭉친 SIMPAC 2015 한마음 전진대회

도봉산의 단풍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던 10월의 마지막 날, 산자락 아래에는 물결로 가득 채운 SIMPAC인들이 웃음꽃을 피운 채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 날은 SIMPAC의 14주년 해가 되는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회장님과 각 사 대표님을 포함한 많은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SIMPAC 계열사들의 임직원 약 450명이 참여하여 '한마음 전진대회'라는 행사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된 모습의 SIMPAC을 볼 수 있었다.

추운 날씨를 비웃기라도 한 듯 SIMPAC인들은 도봉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한 채 힘찬 트레킹을 진행하였다. 밀린 업무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던 직장동료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눈 채 행사장소에 도착한 SIMPAC인들은 장기근속자 포상과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트레킹으로 꺼진 배를 맛있는 점심으로 다시금 채우고 나서 행사의 메인 이벤트 격인 SIMPAC 족구 대항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경직된 분위기에서 시작한 족구 경기는 곧 각 팀을 응원하는 함성과 웃음소리로 열기가 금방 달아올랐다. 총 8게임으로 진행된 치열한 족구 경기 결과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마무리되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하나된 모습에서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SIMPAC의 당찬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가을풍경과 함께하는
트레킹! 오랜만에 동료들과
야외에 나와 정말 좋습니다~



SIMPAC을 위해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김치전부터 바베큐까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열정적으로 먹겠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로 희망찬 내일을 만들다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늦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1월 중순, 회사 창립 기념과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진 소재의 족구장에서 체육대회가 실시되었다. 오늘날만큼 업무를 등지고 즐겁게 임하자는 송호석 대표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SIMPAC메탈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이룸으로 한 도전, 소통, 창의, 행복의 4개 팀은 우승을 목표로 하나가 되어 체육대회에 임했다.

4강전을 시작으로 준결승전과 대망의 결승전으로 이어진 족구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를 더했다. 치열한 경기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는 곧이어 진행된 제기차기와 OX게임으로 더욱 활기를 띄었다. 4개의 팀이 골고루 상품을 나누어 가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된 이번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는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SIMPAC메탈의 초심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1등만 합시다!
아자아자!



내가 왕년에
제기 좀 찼었는데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오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들이

겨울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계절입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가득 덮은 절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두꺼운 옷을 가득 껴입고 한걸음에 뛰어나가고 싶지만 따뜻한 담요와 섶노릇게 익은 군고구마가 내 옆에 자리하면 여기가 바로 천국임을 알 수 있죠. 기록적인 한파로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이번 겨울, 충남 아산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업무에 지친 피로도 풀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사진/글 :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준기 대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갈 곳을 잃는다. 겨울에도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그곳을 찾아가 즐기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다. 겨울축제는 특성상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추위와 싸워야 하고 따뜻한 곳에서 쉬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말 그대로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그래서일까. 매년 겨울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온천을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총 2만 5,437㎡ 규모에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곳은 물 좋은 온천수로 손꼽히는 최상급 유황 온천수에서 온천욕과 스파를 실내·외 풀장에서 사계절 즐길 수 있다. 온천대욕장뿐만 아니라 실내·외 풀장도 모두 유황온천수로 운영된다. 또한 여러 가지 미끄럼틀과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내와 실외로 이어진 온천장은 그야말로 재미와 흥미가 더해져 가족들이 함께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당진에서도 30분 거리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외투를 뚫고 들어오는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늦은 아침을 먹고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로 향했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온천을 이용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방문했고 주차장에는 차들로 북적였다. 온천의 주말 1인 가격은 43,000원이지만 우리 가족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표를 구매하였다. 2인 이용권을 1인 이용권 가격에 구매했으니 부담 없이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라커룸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실내 바데풀로 향했다. 바데풀은 온천수를 이용해 각종 질병의 예방과 요양,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건강보양 온천시설이다. 실제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는 온천욕과 동시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아쿠아로빅, 아쿠아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4살 된 아들의 풀리 튜브에 바람을 넣고 나서 와이프와 아들을 데리고 즐겁게 물놀이를 하였다. 실내 바데풀은 플로팅, 넥사워, 하이드로제트, 드림베스 등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또한 야외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실외 유수풀은 150m로 초당 1m유속으로 흐르고 있어 튜브를 타고 놀기에는 제격이었다.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찾아온 점심시간. 금강산도 식후경인지라 실내 바데풀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가로 향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문 요리사가 직접 요리해 음식을 내놓고 있다. 음식도 한정된 메뉴가 아닌 개발메뉴를 내놓고 있어 먹는 재미에 덧붙여 고르는 재미가 더해졌다. 푸드코트에는 한식, 중식, 양식 등이 다양하게 있으며 가격대 또한 크게 비싸지 않아 물놀이 후 가족끼리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날씨가 추워 따뜻한 우동과 돈가스를 시켜 먹었다. 따뜻한 우동 국물이 추위를 달래 주었다. 허기를 달래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 기운이 넘치는 아들



과 함께 다시 물놀이를 즐겼다. 가족끼리 온 주말 나들이의 마무리를 온천대욕장에서 샤워로 끝냈다. 유황온천수 덕분인지 몸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산뜻한 기분으로 가족들과 귀가하며 겨울 주말 나들이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온천과 수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에서는 물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곳은 물 냄새가 전혀 나질 않는다. 이유는 최신 청소 기구를 도입하여 청결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내 가족이 이



용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곳은 가족동반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다양한 온천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어른들 또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 지역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 겨울, 충남의 경치와 함께 따뜻한 휴일을 보내는 것도 겨울나기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충남 아산에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추천 여행지

1.아산 그린타워전망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의 부대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그린타워전망대는 과거 소각장 굴뚝이었던 시설물을 활용한 전망대입니다. 150m에 달하는 높이에서 아산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1층에 생태곤충원도 위치해 있어 아이들과 들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아산시의 아경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으니 저녁식사 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실목로 216

2.아산 레일바이크

최근 국내 유명한 관광지에 빠지지 않는 레일바이크가 아산에도 있습니다. 과거 도고 온천역이었던 장소를 레일바이크 역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성수기가 되면 아산으로 데이트 온 커플과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왕복거리로 5.2km, 소요시간은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점심으로 배를 채운 후 운동삼아 즐기시길 추천합니다. 단, 겨울에는 추위도 같이 태우고 즐겨야 하신다는 점!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99-7

• 전화번호 : 041-547-7882

• 홈페이지 : <http://www.아산레일바이크.com>

• 이용시간 : 09:00 ~ 18:00

3.세계꽃식물원

야외에서 추운 날씨를 견디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여행 코스로 실내 구경이 가능한 세계꽃식물원을 소개합니다. 약 3,000여종의 원예종 관상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이곳은 규모가 꽤 커 관람시간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확장 공사를 통해 식물원 구경을 마친 뒤에는 입장권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로 교환해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여행 코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576

• 전화번호 : 041-544-0746

• 홈페이지 : <http://www.asangarden.com>

• 이용시간 : 10:00 ~ 18:00





‘시작이 반이니 하면 이룰 수 있다’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Good, SIMPAC인의 어학 도전기

경쟁력 있는 직장인의 필수 덕목으로 손꼽히면서도, 직장인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올해의 목표인 어학 공부. 직장인 3명 중 1명이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까지 공부 중이라고 하니,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한 직장인의 노력은 말 그대로 뜨겁다. 하지만 이 뜨거운 노력에도 결과는 천차만별. 어학 공부의 높은 벽만 실감한 채 중도하차를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멀리하기도 가까이하기도 힘든 외국어와 친해질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학 실력을 쌓아온 SIMPAC 맨을 찾아, 그들의 땀내 나는 어학 도전기를 들었다.

지영훈 SIMPAC 경영지원팀, 유금홍 SIMPAC인더스트리 해외영업팀

Q.가능하다면 흠치고 싶은 능력이지요.
남다른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는 두 분 반갑습니다.



지영훈> 영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을 뿐이지, 실력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 그 자체인 걸요. 다만 교육담당자로 일하다 보니 어학 강의를 준비하는 업무가 필수적이라, 동료들보다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이에요. 낯선 사람도 자꾸 부딪치면 정드는 것처럼 외국어도 자주 접하면 친근해지고 쉬워지는 법이죠.



유금홍> 해외영업팀에게 외국어는 필수 덕목이라 흠쳐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일본어 실력이 제 자부심이기도 해서 꼭 지켜야 합니다. 만일 잃어버리면 마법주머니 없는 도라에몽 되는 거 아시죠.(웃음)

Q.직장인이 어학 공부를 하는 이유 1위가 ‘업무 실력 향상’이라는 데요.
실제 어학 실력이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나요?



유금홍>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연락이 중요한 저한테는 외국어가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요. 전혀 외국어가 필요 없는 업무나 간단히 어학 사전의 도움만 받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직장인에게 어학 공부는 필수고 대세니까 무조건 나도 해야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영훈> 저도 이유 불문하고 모든 직장인이 어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학 강의 방향도 잡고, 수업내용도 확인하는 저한테는 영어가 든든한 언덕이지만요. 회술이나 미적 감각, 건강한 신체 같은 요소가 외국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분야도 있으니까요.



실제 업무와 연관이 없는데도 어학 공부 목표를 업무 실력 향상으로 잡는 것보다는요. '어느 나라 여행을 위해서' 혹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를 목표로 두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질 거라 봅니다.

Q.멀리두기도 가까이 두기도 쉽지 않은 게 어학공부라고 하잖아요.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유금홍 > 저는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보다가 공부까지 발 들인 경우예요. 어릴 때부터 일본 게임과 만화에 관심이 많았어.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알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일본어 책을 뒤적거리면서 독학을 하게 됐고요. 고3이 되고는 능력이 너무 싫어서 유학시험을 준비해 일본 대학에 진학했어요. 6년 반을 일본에 머물면서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수준 높은 일본어도 구사하게 됐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분에 언어까지 얻은 거죠.

지영훈 > 절박함이 공부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나요?(웃음) 저는 실제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인턴 영어면접에서 입도 탈락 못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뭐라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찾아왔고, 바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필리핀 6개월짜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끊고는, 하루 13시간씩 영어 공부만 했죠. 책이 찢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모르는 건 손질받기까지 동원해서 물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실력은 제자리라 답이 안 보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Q.타국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쉬웠을 리가 없겠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웃고픈' 기억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유금홍 > 당시 유학생 모임에 가입하면서 일본인 국제교류 서클과 친하게 지냈어요. 덕분에 일본인 친구가 많이 생겨서, 방학 맛이 한국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고구마 케이크가 한창 유행이라 그 맛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디저트로 고구마 케이크를 먹자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구마라는 한국어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새끼 곰'이란 뜻이었어요. 새끼 곰으로 만든 케이크라니, 놀랄 만도 하죠.

지영훈 > 저는 영어를 빨리 배우려고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는 좀 하는 일본인 룸메이트를 만났는데요.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에어컨을 켜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웅케 그 말을 알아듣고는 'It's up to you'라고 하더군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인데, 전 에어컨을 업(up) 시켜서 너(You)만 켜라는 말인 줄 알고 혼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켰었죠.

Q.아무리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도 쓰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도 어학공부에 신경을 쓰고 있나요?

지영훈 > 현재 업무인 어학강의 지원을 잘 수행하는 게 곧 제 공부이기도 해서 열심히 일로써 공부 중입니다. 따로 참여하는 어학 스터디는 없지만, 만일 스터디가 만들어진다면 교육 담당자로서 잘 운영되도록 꼭꼭 지원하겠습니다.

유금홍 >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추리소설, 영화 등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요. 부서 동료들과도 매일 아침 일본어 스터디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어에 관심 있는 SIMPAC인들이 도움을 청한다면 언제든지 도움 생각도 있습니다.

Q.이런 질문 수없이 받아봤겠죠? 몸소 터득한 어학 공부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유금홍 > 그 언어권 나라의 문화를 궁금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꺼운 책을 사서 앞부분만 보고 몇 년간 덮어두는 것 보다, 그 나라의 드라마나 소설 · 노래 · 스포츠 선수 등에 관심을 가지면 더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 여행을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곳 사람들과 눈인사라도 직접 해보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거든요. 관심을 두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만 한 비법은 없습니다.

지영훈 >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편한 길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못해도 현지인과 자주 접촉해서 자신 생각을 표출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하죠. 저는 급할 때면 구글 번역기라도 돌려서 저를 표현하려고 애썼거든요. 한 가지 더, 영어 공부에 문법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법 공부는 한 권의 책으로 끝까지 여러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더군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됐고요. 한창 공부할 때 외웠던 200개의 문장이 영어 실력 향상에 한 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Q.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금홍 > 특정 외국어보다는 언어별 사투리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도 지방별 사투리가 강해서 문법이나 단어, 억양에 차이가 큰데요. 일본어를 비롯한 어떤 언어든 공부를 시작하면 사투리까지 알아둘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싶어요.

지영훈 > 일본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이에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일본인 친구들과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대화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영어로는 100%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본어에 능숙하면 더 깊은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Q.2016년 목표를 어학 공부로 세운 SIMPAC인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세요.

유금홍 >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에 능숙해야 외국어에 대한 자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데요. 우리의 국어 실력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영훈 >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영어면접에서 꿀 먹은 벙어리였던 제가 지금은 SIMPAC인들의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지원하는 어학강의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강사가 여성분으로 바뀐 뒤에 강의 참석률과 만족도가 부쩍 높아진 걸 교훈 삼아(웃음), 더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어학강의를 제공하도록 힘쓸게요. 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려주는 감성 스토리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SIMPAC메탈로이 서울사무소
기획재무팀 김소형 주임의 개인폴더

좋은 전시회가 있어 SIMPAC인들에게 소개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젠 작년이 되어버린 지난 12월에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전시회를 보러 한남동에 새로 생긴 디뮤지엄에 갔습니다. 디뮤지엄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인원이 많았습니다. 건물 자체도 이쁘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전시회의 이름처럼 아홉 개의 방에 각각 다른 감성을 다른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LED로 표현된 작가들의 이름벽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작가 한 명의 작품이 있었고 대림미술관 앱을 통해서 작품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작품 이해력을 도와주었습니다.



개인폴더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전시회 후기



보는 전시와 달리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하고 작품과 소통하는 이번 전시는 기대했던 것보다 볼거리가 다양했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9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회라 각 작품마다 색다른 매력을 지녀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이용과 관련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 구입한 티켓은 전시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입장이 가능하니 표는 보관해주세요. 전시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넉넉하니 SIMPAC인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33호부터 SIMPAC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영화, 책,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SIMPAC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개인폴더' 코너에 참여한 직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6
NEW YEAR
SIMPAC
STORY

편지 왔습니다

(주)SIMPAC 라순혁 사우가
전하는 편지

편지 왔습니다

(주)SIMPAC 국내영업팀 라순혁 사우가 김상덕 사우에게



(주)SIMPAC은 제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근하고 나서부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배정을 받고 김상덕 선배님을 만난 후로는 앞서 했던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바쁜 업무 중에도 항상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영업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일의 진행방향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앞으로 프레스 기술영업이나 영업관리를 함께 있어 프레스에 대한 기초지식과 공대생으로서 생소한 무역업무에 대한 지식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며 짧은 시간 동안 저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님께 감사했던 부분은 처음 입사를 한 후에는 본가인 분당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다 보니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선배님께서 저의 사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회사를 다니는데 있어 업무에 집중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상덕 선배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바쁜 결혼준비 중에도 오후 업무를 마치고 ERP 원가교육, 결재문서 교육, 고객응대 교육 등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신입사원 OJT 교육에 포함된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역시 빠르게 회사생활에 적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SIMPAC STORY를 통하여 김상덕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덕 선배님과 함께할 SIMPAC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님의 잘생긴
입술을 지켜주기
위해 입술보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모두에게 보여주고픈
나의 입니다.



SIMPAC인에게 보여주고픈 나의 가슴기!
from SIMPAC 설계팀 김동호 사원

내용: 쌀쌀한 겨울이 오면서 땀땀한 히터 때문
인지 실내가 많이 건조하더라구요.
더 이상 저의 소중한 피부의 촉촉함을 잃을 수
없기에 귀여운 가슴기를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촉촉함을 책임지는 귀요미 가슴기
입니다! 내 피부는 이제 촉촉하다 전해라~



인형 뽑기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from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서상철 대리

내용: 토요 근무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손인성
사원과 함께한 인형 뽑기 결과물입니다. 성과가
꽤 괜찮죠?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계열사분들과
함께 인형뽑기의 재미를 함께하고 싶네요 ㅎㅎ
인형 뽑기 원정 가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
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호 주제는 "함께하면 즐거운 " 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2016년 새해를 기쁜 소식과 함께 맞이하는 SIMPAC 가족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을 열게 될 SIMPAC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2016년 1월 10일
(주)SIMPAC 생산팀
이진수 과장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5년 11월 7일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지원팀 임충훈 대리
아들 임여준

2015년 12월 21일
SIMPAC인더스트리
주조팀 지원반
심선기 사원 딸 심별

